예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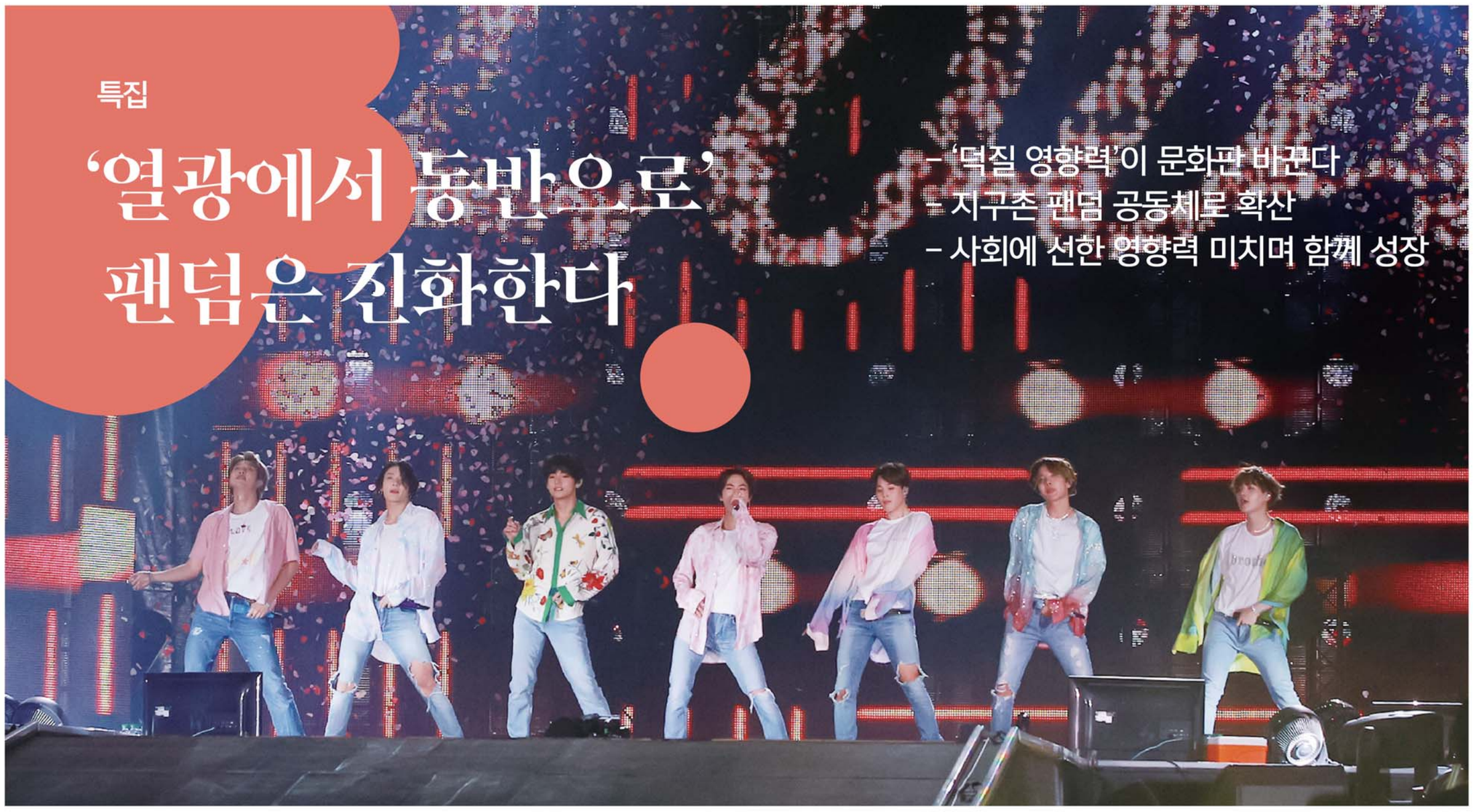
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

2019년 11월호

10월 31일 발행

구독신청 : 062-220-0550

팩 스 : 062-222-0195



특집

'열광에서 동반으로' 팬덤은 진화한다

- '덕질 영향력'이 문화판 바꾼다
- 지구촌 팬덤 공동체로 확산
- 사회에 선한 영향력 미치며 함께 성장

기획

2019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

WHITE MAGIC CITY : 치유도시

문화도시, 도서관이 미래다-完

다문화에 열린 시스템

멜버른 빅토리아 주립도서관

아시아문화 원류를 찾아서-네팔④

파슈파티나트 사원 앞을 흐르는

바그마티 강

기획-올 가을, 그 섬에 가고 싶다

지붕없는 미술관, 연홍도를 가다

워라밸시대, 문화관광이 뜬다⑦

미술, 건축, 음악의 도시

독일 슈투트가르트

클릭, 문화현장①-여수 예울마루

100년 예술산책 '한국근현대미술걸작전'

인물 화제

독립운동가 부부의 삶과 발자취

최원순·현덕신

예향이 만난 이 사람

광주 영화비평지 'SCENE1980' 창간한 **김지연, 한재섭**

데뷔 55년, 나이 잊은 '영원한 오빠' **남진**

KIA타이거즈 첫 외국인 감독 **맷 윌리엄스**

강제윤 시인의 남도의 섬과 토속음식⑩

여수 손죽도 '따개비무침'

바다의 숨결 스민 해산물 밥상

천사섬 매력 탐험 신안 섬여행

- 천사대교 달리자
- 으뜸 천일염과 홍어

문화 읽기

공공예술 '아트 펀드레이징' 걸음마

예향 초대석

등단 50년, 깊어진 '풀꽃시인' 나태주

"시인은 세상에 위로 건네는 사람"

전시리뷰

<북경서신>전

김정운의 '바우하우스 이야기'④

파울 클레는 '리듬'을 그리고 싶었다